

# 〈노래하는 詩〉의 文體

李 宇 榮\*

## I. 序 言

시에 대한 종래의 우리의 태도는 경험적 증거를 合理化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이것은 詩를 단순히 哲學이나 美學, 그리고 解析學的으로 설명하려는 데서 온 편의주의의 批評 態度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시를 보다 言語科學 가 가까이 두고 새롭게 解體해 보려는 노력은 결코 만능한 방법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시도해 봄직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 小論은 文體言語學的 입장에서 소위 ‘노래하는 詩’의 특성을 규명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과연 ‘노래하는 詩’가 ‘생각하는 詩’와 어떤 音韻·音聲學的 차이가 있는가? 혹은 形態的·統辭的 차이가 있는가를 밝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뜻있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래하는 詩’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고려가요인 ‘靑山別曲’을 주대상으로 삼고 言語學的 설명을 가해 보려 한다.

한편, 객관적 결과의 유도를 위해, 비교 자료로 이 시와는 근본적으로 發聲

\* 한국체육대학 교수

法이나 構造가 다른 金光林의 ‘壬子’<sup>1)</sup>라는 작품을 택하였다. 현대시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시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Ⅱ. 作品分析

### 1. 靑山別曲의 分析

- S 1 살어리 살어리랏다
- S 2 靑山애 살어리랏다
- S 3 멀위랑 드래랑 먹고
- S 4 靑山애 알어리랏다
- S 5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 6 우러라 우러라 새여
- S 7 자고니러 우러라 새여
- S 8 널라와 시름 한 나도
- S 9 자고 니러 우니로라
- S10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11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 S12 물아래 가던 새 본다
- S13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 S14 물아래 가던 새 본다
- S15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16 이링공 더링공 향야
- S17 나즈란 디내와손더
- S18 오리도 가리도 업슨
- S19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 S20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21 어되라 디디던 돌코

---

1) 金光林의 作으로 제5회 韓國詩人協會賞을 수상한 作品이다.

- S22 누리라 마치던 돌코
- S23 띄리도 피리도 업시
- S24 마자서 우니노라
- S25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26 살어리 살어리랏다
- S27 바른래 살어리랏다
- S28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 S29 바른래 살어리랏다
- S30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31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 S32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 S33 사스미 킷대예 울아서
- S34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 S35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36 가다니 빅브론 도끼
- S37 설진 강수를 비조라
- S38 조롱곳 누로기 킷와
- S39 잠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 S40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1) 소노리티

하나의 音節은 소노리티가 큰 母音이나 鼻音, 流音 등의 成節的 子音을 頂點으로 核을 이루고, 여기에 소노리티가 작은 頭子音이나 末子音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音素 하나하나가 아닌 音節의 소노리티를 核母音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本稿의 취지로 보아서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Jespersen<sup>2)</sup>의 분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이 될지 모르지만, ‘달’은 ‘13’으로 수치를 표시하여 ‘아’의 ‘8’과는 구별하여 적기로 한다. 우리의 聽覺 印象은 ‘아’보다는 ‘달’이 분명히 可聽度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音素의 소노리티의 총합이 곧 音節의

2) Saussure나 Jespersen은 Sonority를 수치로 표시하여 설명하였다.

4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소노리티가 될 수는 없지만 本稿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무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S 1 : 13811/13811/149/  
S 2 : 13138/15811/149/  
S 3 : 17717/91317/138/  
S 4 : 13138/15811/149/  
S 5 : 14111411/141713/141311/1413/  
  
S 6 : 61313/61313/98/  
S 7 : 981013/61313/98/  
S 8 : 16138/71412/1218/  
S 9 : 981013/6101313/  
S10 : 141411/141313/141311/1413/  
  
S11 : 9149/9149/1210/  
S12 : 14814/9149/1210/  
S13 : 101012/131217/979/  
S14 : 14814/9149/1210/  
S15 : 14111411/141313/141311/1413/  
  
S16 : 61413/91413/98/  
S17 : 9717/7128/1110/  
S18 : 7109/9109/911/  
S19 : 91017/897/81113/  
S20 : 14111411/141313/141311/1413/  
  
S21 : 8713/9712/128/  
S22 : 101113/12714/128/  
S23 : 10109/9109/97/  
S24 : 1299/6101113/  
S25 : 14111411/141313/141311/1413/  
  
S26 : 13811/13811/149/

S27 : 91313/13811/149/  
 S28 : 121297/78107/138/  
 S29 : 71313/13811/149/  
 S30 : 14111411/141313/141311/1413/

S31 : 91010/910101/71113/  
 S32 : 7127/91010/71113/  
 S33 : 9910/1198/1189/  
 S34 : 91110/9911/71213/  
 S35 : 14111411/141313/141311/1413/

S36 : 91010/9716/97/  
 S37 : 1311/13715/7813/  
 S38 : 81610/10138/138  
 S39 : 109810/1297/91578/  
 S40 : 14111411/141313/141311/1413/

평균치-11·1

筆者가 無作爲로 표집하여 조사한 한국어 음절 평균 例示보다 0.6상회하는 수치로 靑山別曲이 주로 받침이 없는 開音節語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可聽度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音數律과 母音의 音質

3.3.2調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려가요 십여 편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서는 가시리와 더불어 76%<sup>3)</sup>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고려가요 275句 가운데 33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로 큰 비중으로 우리 시가를 지배해 온 音數律이라 볼 수는 없다. 주로 靑山別曲과 가시리에 많이 나타나는 가락이다.

한편, 母音을 양성, 중성, 음성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것은 母音의 音質에 따라 聽者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전혀 다르거나 새로울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

3) 現代詩學 통권 174권에 발표한 拙稿 <靑山別曲의 새로운 解釋>에서.

고 시도한 작업이다.

- S 1 : 3.3.2調 +- | /+- | /++/  
 S 2 : 3.3.2調 +++ /+- | /++/  
 S 3 : 3.3.2調 --+ /+++ /++/  
 S 4 : 3.3.2調 +++ /+- | /++/  
 S 5 : 4.3.3.2調 + . + | /++- /++ | ++/  
  
 S 6 : 3.3.2調 --+ /--+ /+-/  
 S 7 : 4.3.2調 + + . + /--+/  
 S 8 : 3.3.2調 -++ / | -+ /++/  
 S 9 : 4.3調 + + | - /-++/  
 S10 : 4.3.3.2調 + | + | /++- /++ | /++/  
  
 S11 : 3.3.2調 +-+ /+-+ /++/  
 S12 : 3.3.2調 -++ /+-+ /++/  
 S13 : 3.3.2調 | -- /+-+ /+ | +/  
 S14 : 3.3.2調 -++ /+-+ /++/  
 S15 : 4.3.3.2調 + | + | /++- /++ | /++/  
  
 S16 : 3.3.2調 | | + /- | + /++/  
 S17 : 3.3.2調 +-+ / | ++ /+-/  
 S18 : 3.3.2調 +-+ /+ | + /--/  
 S19 : 3.3.3調 +-+ /+- | /+-+/  
 S20 : 4.3.3.2調 + | + | /++ | /++ | /++/  
  
 S21 : 3.2.2調 --+ /- | - /++/  
 S22 : 3.3.2調 - ' + /+ ! - /++/  
 S23 : 3.3.2調 -- | + /+ | + /-1/  
 S24 : 3.4調 + +- /- | ++/  
 S25 : 4.3.3.2調 + | + | /++- /++ | /++/  
  
 S26 : 3.3.2調 +- | /+- | /++/  
 S27 : 3.3.2調 +++ /+-+ /++/

S28 : 4. 4. 2調 +++ | / - + + + / + + /  
 S29 : 3. 3. 2調 +++ / + - | / + + /  
 S30 : 4. 3. 3. 2調 + | + | / + + - / + + | / + + /

S31 : 3. 3. 3調 + + + / + + + / - + + /  
 S32 : 3. 3. 3調 - - | / + + + / - + + /  
 S33 : 3. 3. 3調 + + | / | + - / + + - /  
 S34 : 3. 3. 3調 + - + | / + + - / + + | / + + /

S36 : 3. 3. 2調 + + | / + - - / + - /  
 S37 : 2. 3. 3調 - + / + - - / | + + /  
 S38 : 3. 3. 2調 + + + / - + | / + + /  
 S39 : 4. 3. 4調 + + + | / + - | / + | | + /  
 S40 : 4. 3. 3. 2調 + | + | / + + - / + + | / + + /

양성이 221로 61%, 중성이 65로 18%, 음성이 76으로 21%로 나타났다. 양성  
 모음의 출현이 대단히 많다. 筆者가 無作爲로 소설을 가지고 조사한 양성  
 52%, 중성 14%, 음성 34%<sup>4)</sup>에 비하면 양성과 중성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 (3) 開口度

소쉬르의 분류에 따라 母音의 開口度를 조사해 본 것이다. 거의 開音節語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뜻이 있는 것이다.

S 1 : 364 / 364 / 17 /  
 S 2 : 226 / 364 / 17 /  
 S 3 : 242 / 762 / 05 /  
 S 4 : 226 / 364 / 17 /  
 S 5 : 3434 / 322 / 374 / 37 /  
 S 6 : 467 / 467 / 66 /  
 S 7 : 7546 / 467 / 66

4) 손장순의 소설 '뿌리없는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8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S 8 : 376 / 422 / 75 /

S 9 : 7546 / 4457 /

S10 : 3434 / 372 / 374 / 37 /

S11 : 726 / 726 / 27 /

S12 : 376 / 766 / 27 /

S13 : 242 / 232 / 645

S14 : 376 / 766 / 27 /

S15 : 3434 / 372 / 374 / 37 /

S16 : 522 / 622 / 77 /

S17 : 742 / 466 / 26 /

S18 : 545 / 745 / 02 /

S19 : 742 / 514 / 547 /

S20 : 3434 / 372 / 374 / 37

S21 : 647 / 642 / 35

S22 : 447 / 742 / 35 /

S23 : 445 / 545 / 04 /

S24 : 776 / 4457 /

S25 : 3434 / 372 / 374 / 37 /

S26 : 364 / 364 / 17 /

S27 : 776 / 346 / 17 /

S28 : 7774 / 4562 / 05 /

S29 : 776 / 364 / 17 /

S30 : 3434 / 372 / 374 / 37 /

S31 : 777 / 777 / 457 /

S32 : 524 / 777 / 457 /

S33 : 774 / 165 / 376 /

S34 : 623 / 663 / 457 /

S35 : 3434 / 372 / 374 / 37 /

S36 : 774 / 642 / 54 /

- S37 : 32/253/457/  
 S38 : 521/454/66/  
 S39 : 0774/614/7415/  
 S40 : 3434/372/374/37/

평균 4.5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성모음이 開口度가 큰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ㄱ’과 ‘ㄴ’, 그리고 ‘ㅇ’음이 많이 출현하는 초성까지를 고려해 놓으면 이 작품은 間隙이 넓은 音素들의 排列로 音節 構造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많지는 않지만, 중성에 실현된 ‘ㄹ’과 ‘ㄴ’과 ‘ㅇ’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間隙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可聽度가 크다는 뜻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音步 끝 音節 끝 音素

音步의 끝 音節語의 끝소리로 나타나는 子母를 조사 분류해 본 것이다. ‘조롱곳’ 하나를 제외한 모든 音步의 끝 音節語가 開音節語이거나 소노리티가 큰 ‘ㄴ’과 ‘ㅇ’과 ‘ㄹ’ 뿐이다. 그리고 前舌高母音 ‘i’와 中舌低母音 ‘a’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편의상 國際音聲記號를 피하고 우리의 子母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하나의 音素가 아닌 것도 있음)

끝 음	출 현 빈 도	백 분 율	기 타
ㅣ	33	26.6 %	
ㅏ	31	24.8 %	
ㅑ	11	8.8 %	
ㅓ	2	1.6 %	
ㅕ	10	8.0 %	
ㅗ	3	1.2 %	
ㅛ	1	0.8 %	
ㅜ	5	4.0 %	
ㅠ	1	0.8 %	
ㅡ	1	0.8 %	

끝 음	출현 빈도	백 분 율	기 타
ㄴ	10	8.0 %	
ㄹ	3	1.2 %	
ㅇ	13	10.4 %	
ㅅ	1	0.8 %	

(5) 音素의 출현 빈도

	초 성		종 성		기 타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ㄱ	32	8.8 %	2	0.5 %	
ㄴ	15	4.1 %	20	5.5 %	
ㄷ	41	11.3 %	0		
ㄹ	112	31.0 %	61	16.8 %	
ㅁ	13	3.6 %	2	0.5 %	
ㅂ	10	2.7 %	3	0.8 %	
ㅅ	35	9.6 %	10	2.7 %	
ㅇ	1	0.2 %	23	6.3 %	
ㅈ	13	3.6 %			
ㅊ	3	0.8 %			
ㅋ	2	0.5 %			
ㅌ		%			
ㅍ		%			
ㅎ	6	1.6 %			
ㅁㅅ		%	1	0.2 %	
ㅅㅅ	1	0.2 %			
모 음	78	21.5 %	242	66.8 %	
총 계	362		362		

초성에서는 ‘ㄱ’이 31%, 모음이 21%로 나타나며 종성에서는 모음이 67%, ‘ㄱ’이 17%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문장의 音節 構造와는 크게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6) 반복

1) 形態素 반복

- ① 다 : S1 S2 S4 S11 S14 S26 S27 S29
- ② 리 : S1 S2 S4 S5 S10 S15 S18 S19 S20 S22 S25 S26 S27 S29 S30 S35 S40
- ③ 고 : S3 S13 S21 S22 S28 S39
- ④ 라 : S5 S6 S7 S8 S9 S10 S15 S20 S21 S24 S25 S27 S29 S30 S31 S32 S34 S35 S37 S40

‘리’와 ‘라’의 形態素가 종결어미, 餘音, 기타의 기능으로 구실하고 있다. ‘르’음은 자음 중에서 소노리티가 가장 크고 開口度가 가장 넓은 음이다. ‘다’는 주로 종결어미로, ‘고’는 연결어미로 쓰였으며, 적당한 반복을 통해 문형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 單語 반복

- ① 살어리 : S1 S1 S2 S4 S26 S27 S29 (단순·격리·점층)
- ② 살어리랏다 : S1 S2 S4 S26 S27 S29(격리·점층)
- ③ 靑山 : S2 S4(격리)
- ④ 먹고 : S3 S28(격리)
- 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알라 : S5 S10 S20 S25 S30 S35 S40(격리)
- ⑥ 울어라 : S6 S6 S7(단순·격리)
- ⑦ 우니노라 : S9 S24(단순)
- ⑧ 가던새 : S11 S11 S12 S14(단순·격리·점층)
- ⑨ 본다 : S11 S12(격리)
- ⑩ 돌코 : S12 S22(격리)
- ⑪ 바를 : S27 S29(격리)

⑫ 가다가 : S31 S31 S32(단순·격리)

⑬ 드로라 : S31 S32 S34(격리·점층)

‘靑山’과 ‘바를’을 제외한 모든 말이 서술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語辭들이다. 單純 반복이 아닌 隔離的 반복과 漸層的 반복을 통해 質感의 美學을 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叙述語에 의해 意味規制를 철저히 받고 있는 韓國語의 특성을 고려하면 동사 일변도의 반복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構文 반복

①살어리 살어리랏다 : S1 S2 S4 S26 S27 S29(격리·점층·변형반복)

② 靑山에 살어리랏다 : S1 S4(격리·동형 반복)

③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S1 S5 S10 S15 S20 S25 S30 S35 S40(격리 : 동형반복)

④ 우러라 우러라 새여 : S6 S7 S9(격리·변형반복)

⑤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 S11 S12 S14(격리·점층·변형반복)

⑥ 어디라 더디던 돌코 : S21 S22(단순·변형반복)

⑦ 바른래 살어리랏다 : S26 S29(격리·동형반복)

⑧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 S31 S32 S34(단순·격리·변형반복)

①과 ②와 ⑦의 반복이 靑山別曲의 詩의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다면, ③은 連章體 詩歌로서의 기능 부담과 이 詩가 노래로서의 성격을 띤 작품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④는 ⑤와 의미의 相關雙을 이루고 있으며, ①~⑧까지의 구문 전체가 3.3.2의 音數律과 만나 싱그러움과 悠長함을 탄생시키고 있다.

### (7) 기타

‘밧와’를 제외한 모든 용언이 동사로 되어 있다. 주어 없이 동사가 곧 문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부사, 관형사와 같은 수식사가 거의 없다. 단지, 부사·관형사적 기능을 가진 相當語(부사형·관형사형)만이 약간 있을 뿐이다.

(8) 作品解説

靑山에 살고 싶다. 머루나 다래 같은 열매나 따 먹으며 청산속에 깊이 묻혀 살고 싶다. 세속과의 인연을 버리고 문득 靑山에 들고 싶은 발상이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새들이여. 이 세상 괴로운 것이 어찌 너희들뿐이겠느냐? 차라리 울음으로 노래하라.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차라리 낙천적으로 웃고 사는도다. 새는 오히려 靑山과 더불어 사는 작자 자신의 분신, 상처받은 비애의 나래를 퍼는 보헤미안이다.

가던 새, 상처뿐인 날개를 하고 가던 새를 보았는가? 靑山도 더불어 벗하지 못하고 구원을 향해 정처없이 날아야 하는 그 가냘픈 나뭇짓을 보았는가? 그 곳이 바다이던가 평원이던가?

이력저력하며 자연과 더불어 벗하는 가운데 낮이라는 시간은 넘길 수가 있었지만,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산새마저 울지 않는) 절대고독, 그 칠혹같은 어둠속에서는 어찌 지낼 것인가? 참으로 가련한 자신인저. 절대 고독속에서의 자기 희생의 육성이다.

어디다 던지든 돌인가? 누구를 겨냥하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팔매질에 맞아서 우니노라. 士禍나 政爭에 휘말리어 상처입고 유배생활을 하는 자신의 피맺힌 한이다.

살아나 볼까. 살아나 볼까? 바다에 나가서 살아나 볼까? 靑山도 마음 정할 만한 곳은 못 되더라. 이것은 바다에 대한 강렬한 애정에서가 아니라, 靑山에 있음에도 마음 잡히지 않음에서리라.

가다가 가다가도 마시어라. 예정지 가다가도 마시어나 보자. 세상꼴 요지경 이어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 재주를 피우는 상황인데 예라, 술이나 마시어라.

(예정지) 갔더니, 커다란 독에 잘 익은 술을 빚는구나! 이 술 한 잔 먹고 즐기자는 청함이니 내 아니 먹고 어이리오? 靑山도 별 수 없더라. 바다도 별 것이 아니로라. 그저 술이 아니고서 이승을 어찌 잊으리오?

이 解説은 작품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본고의 취지와는 다르지만) 덧붙인 것이다. 해석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筆者의 발표 논문<sup>5)</sup>에 따른 것이다.

5) 현대시학 통권 174권에 발표한 拙稿 '靑山別曲의 새로운 해석'에서.

## 2. 작품 ‘壬子’의 分析

- L 1 우리 집 天井에는
- L 2 GOGO族들이 살고 있다.
- L 3 벽을 헐거나
- L 4 방바닥을 뚫는
- L 5 심술궂은 발톱이다
- L 6 生活을 값아
- L 7 기둥을 분지르는
- L 8 능란한 잇발이다
- L 9 간혹 天上을 물어뜯어
- L10 下界를 내려다보는
- L11 둔갑한 天使의 얼굴이다
- L12 죽어도 감겨지지 않을
- L13 저 눈초리
- L14 나는 괴로와하며
- L15 살아갈 만하다
- L16 지금
- L17 우리 집 天井에서는
- L18 亂世를 건너가는 발자욱 소리가
- L19 요란하다
- L20 늘 生活 때문에 말썽이 붙는
- L21 우리 夫婦는
- L22 초저녁에 꺼낸 禍根을 놓고
- L23 질근질근 되썩다가
- L24 결국은 삼키고야 만다
- L25 滯症처럼
- L26 오늘의 막차가
- L27 鐵橋를 구르면서
- L28 허둥지둥 달려든다
- L29 다락에서는
- L30 심심한 GOGO族들이
- L31 무슨 讀本人지를

L32 열심히 찢어 발기고 있다.

金光洙의 '壬子'

(1) 소노리티

각 音節에 실현되는 소노리티를 합친 것이다. 역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일 뿐 나뉠대로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앞의 例文과의 對比를 위해서 필요하다.

- L 1 : 6118/1314714/
- L 2 : 8810106/13979/
- L 3 : 810/131012/
- L 4 : 12101110/1114/
- L 5 : 1111910/149610/
- L 6 : 12810/108/
- L 7 : 71211/1181114/
- L 8 : 141712/713610/
- L 9 : 138/131311/14888/
- L10 : 8815/121010814/
- L11 : 111112/1396/1212610/
- L12 : 889/13888/1210/
- L13 : 914811/
- L14 : 1214/8128810/
- L15 : 13814/16810/
  
- L16 : 712/
- L17 : 6118/13121014/
- L18 : 14815/13121014/131017/81110/
- L19 : 717810/
- L20 : 14/13129147/16136/814/
- L21 : 611/7714/
- L22 : 810137/916/81110/128/
- L23 : 111211/88910/
- L24 : 2910/13798/1610/
- L25 : 811917/

- L26 : 7146 / 13910 /  
 L27 : 13917 / 711149 /  
 L28 : 812812 / 13111110 /  
 L29 : 9147914 /  
 L30 : 111112 / 8810106 /  
 L31 : 1011 / 91210817 /  
 L32 : 11116 / 881489 / 79 /

평균치 - 10.3

(2) 音數律과 母音의 音質

音數律을 찾아내기에는 힘든 散文律로 되어 있다. 母音의 音質을 검토해 보고 대비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 L 1 : -11 / --- /  
 L 2 : +++- | / ++ / | + /  
 L 3 : -- / -- + /  
 L 4 : +++- / -- /  
 L 5 : 1 --- / +- - + /  
 L 6 : +- - / ++ /  
 L 7 : | -- / - | -- /  
 L 8 : - + + / | + | +  
 L 9 : + + / + + - / --- /  
 L10 : --- / + + + +  
 L11 : - + + / - + - / -- | + /  
 L12 : --- / + - | | / + - /  
 L13 : - - + | /  
 L14 : + - / + + + + - /  
 L15 : + + + / + + + /  
  
 L16 : | - /  
 L17 : - - | / - - - - - /  
 L18 : + - - / - - + / + + - / + | + /  
 L19 : + + + + /

- L20 : - / + + + - - / + - | / - - /  
L21 : - | - - - /  
L22 : + - - - / - + / + - - / + + /  
L23 : | - | - / + | - - /  
L24 : - - - / + | + + / + + /  
L25 : - - - - /  
L26 : + - - / + + + /  
L27 : - + - / - - - /  
L28 : - - | / + - + - /  
L29 : + + - - - /  
L30 : | = + / + + + - | /  
L31 : - - / + + | | - /  
L32 : - | | / | - + | + / | + /

양성이 38%, 음성이 47%, 중성이 15%로 나타난다. 음성이 현저하게 많다.

(3) 開口度

- L 1 : 440 / 2252 /  
L 2 : 55034 / 35 / 17 /  
L 3 : 03 / 367 /  
L 4 : 2703 / 32 /  
L 5 : 2302 / 3047 /  
L 6 : 233 / 37 /  
L 7 : 423 / 2442 /  
L 8 : 222 / 1347 /  
L 9 : 20 / 223 / 3606 /  
L10 : 763 / 66752 /  
L11 : 202 / 274 / 3347 /  
L12 : 065 / 2644 / 23 /  
L13 : 6 / 254 /  
L14 : 72 / 55676 /  
L15 : 373 / 277 /

- L16 : 42/  
 L17 : 440/22562  
 L18 : 253/2672/370/547/  
 L19 : 5277/  
 L20 : 3/23625/324/-2/  
 L21 : 44/442/  
 L22 : 5605/62/623/15/  
 L23 : 3232/5077/  
 L24 : 602/2457/77/  
 L25 : 5262/  
 L26 : 534/077/  
 L27 : 353/5426/  
 L28 : 6242/3627/  
 L29 : 70562/  
 L30 : 222/55034/  
 L31 : 52/02243/  
 L32 : 324/06345/17/

靑山別曲과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이다. 평균 3.6을 기록하고 있다. 음성 모음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수궁이 가는 수치이다.

(4) 音步 끝 音節 끝 音素

音數律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규칙성을 띠고 있지 못하며, 행과 연의 구별도 큰 의미가 없다. 단지 散文律이나 意味律을 가정하고 이에 접근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 散文律에 관하여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으나 意味律에 관하여는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하였다. 意味律은 意味의 결인 것이다. 의미의 반복이나 漸層的 深化를 통해 內的 構造를 이루고 있는 질서이다. 그것은 대립의 관계에서도 가능하고 並置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本稿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詩가 散文과 다를 수 있는 것은 意味의 緊張이나 弛緩, 그리고 彈力性에 의존하는 바 크다.

(5) 音素의 출현 빈도

	초 성		종 성		기 타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ㄱ	35	15 %	12	5.2 %	
ㄴ	22	9.4 %	38	16.3 %	
ㄷ	26	11.2 %	1	0.4 %	
ㄹ	16	6.8 %	36	15.5 %	
ㅁ	9	3.9 %	8	3.4 %	
ㅂ	13	5.5 %	5	2.1 %	
ㅅ	18	7.7 %	1	0.4 %	
ㅇ			12	5.2 %	
ㅈ	19	8.1 %	2	0.8 %	
ㅊ	10	4.3 %			
ㅋ	1	0.4 %			
ㅌ	1	0.4 %	1	0.4 %	
ㅍ					
ㅎ	13	5.6 %	1	0.4 %	
ㄱㄱ	1	0.4 %			
ㅅㅅ	2	0.8 %	2	0.8 %	
ㄷㄷ	3	1.3 %			
ㅈㅈ	1	0.4 %	1	0.4 %	
ㄴㅎ			1	0.4 %	
ㄹㄱ			1	0.4 %	
ㄹㅎ					
모 음	43	18.5 %	111	47.6 %	
총 계	233		233		

초성에서는 'ㄱ' 'ㄷ' 'ㄴ' 'ㅈ' 'ㅅ'의 순이며(물론 모음으로 시작되는 音節語가 약 19%나 되지만), 종성에서는 약 48%의 모음과 'ㄴ' 'ㄹ' 'ㅇ'의 순이다. 초성에는 韻律的 요소가 별로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종성에는 약간 響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散文性이 짙은 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散文과 이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이라 여겨진다.

## (6) 반 복

L1과 L17의 隔離的 반복, L5와 L8과 L11의 叙述語의 變形 반복, L2, L5, L8, L11, L15, L19, L24, L28, L32의 ‘다’形態素 반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靑山別曲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반복의 정도가 미미하다.

## Ⅲ. 結 語

‘노래하는 詩’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靑山別曲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특징이 ‘노래하는 詩’ 전체에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유사한 形質의 言語의 特性을 발견하게 된다.

① 소노리티가 크다. 한국어의 음절 평균 10.5보다 0.6이 많고, 작품 ‘壬子’에 비하면 0.8이나 상회하는 11.1로 나타난다. 靑山別曲이 받침이 없는 開音節語가 대부분임을 생각하면 初聲에 소노리티가 큰 자음들이 많이 나타남을 암시 받을 수 있다.

(2) 모음 출현 빈도는 양성(陽性)이 61%, 중성(中性)이 18%, 음성(陰性)이 21%로 양성(陽性)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무작위로 표집한 소설의 평균치 52%에 비하여 무려 9%나 많으며, 작품 ‘壬子’에 나타난 38%에 비하면 23% 상회하는 수치이다.

(3) 音數律은 3.3.2調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가요 중 ‘가시리’와 쌍을 이룬다.

(4) 開口度가 크다. 평균 4.5로 작품 ‘壬子’에 비하여 0.9%가 많다. 양성모음이 開口度가 큰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ㄹ’ ‘ㄴ’ ‘ㅇ’음이 많이 출현하는 초성까지를 고려해 넣으면 靑山別曲은 間隙이 넓은 要素들의 排列로 音節構造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끝 音步의 끝 音節語들은 거의 開音이거나 子音도 可聽度가 큰 響音 ‘ㄴ’ ‘ㄹ’ ‘ㅇ’뿐이다. 母音은 前舌高母音 ‘i’와 中舌低母音 ‘a’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6) 音素 출현 빈도를 보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22%에 불과한데 비해 初聲에 ‘ㄹ’음이 31%나 나타나며, 중성에서는 開音이 67%, ‘ㄹ’음이 17%나 나

타난다. 이것은 初聲에 障礙音이 많이 나타나는 작품 ‘壬子’와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7) 形態素 반복을 통해 文型的 均衡을, 單語 반복을 통해 의미의 漸層的 深化를, 構文의 반복을 통해 음성 의미의 線型的 연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작품 ‘壬子’는 주로 意味律에 의존하고 있을 뿐 음성·音韻學的 美的 質感이나 形態·統辭的 特徵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현대시들이 내적 질서를 추구하는 있는 점과 관련하여 解明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상에서 본 特徵들을 재정리해 본다면, 靑山別曲은 音數律 이외에 音性律이 크게 音樂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詩에 音性律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子音이나 母音의 音質을 연구하고 音節의 音聲學的 意味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소위 ‘노래하는 詩’의 解體가 새로울 수 있을 것이다.

韓國詩를 〈노래하는 詩〉와 〈생각하는 詩〉로 大別해 볼 때 〈노래하는 詩〉에 대한 言語學的 解明은 곧 韓國詩의 特性을 규명하는 작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